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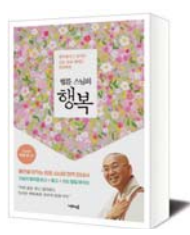
▶조용한 공포로 다가온 바이러스(야마노우치 가즈야) 과학이 발전할수록 새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최근에 나타난 바이러스를 보면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이 있다. 이들은 신종 바이러스이자 변종 바이러스이다. 저자는 역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간과 바이러스 간 관계를 밝혀내고, 당시 유행했던 바이러스 특성과 이를 박멸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하이픈, 1만7000원.



▶나는 오늘도 콘텐츠를 팝니다(이필성 지음)=모바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콘텐츠 산업은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매출 목표 100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샌드박스네트워크의 이필성 대표가 콘텐츠, 인플루언서,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 전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위즈덤하우스, 1만6000원.



▶법륜 스님의 행복(법륜 지음·최승미, 김정숙 그림)=30만 독자의 사랑을 받으며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법륜 스님의 행복' 양장본 특별 에디션이다. 특별 에디션은 화가 김정숙의 '봄의 향연-3'으로 화사하게 표지를 바꾼 양장본과 100일 필사 노트를 함께 구성해 책 속 구절을 하루 한 문장씩 100일 동안 따라 적도록 했다. 또 오디오북(7시간)으로 제작한 QR코드를 넣어 행복의 지혜를 귀로 듣는 경험도 선물한다. 나무의마음, 2만1000원.



▶페미니즘으로 다시 쓰는 옛이야기(지현·조박선영·조이스박·백영명·유숙열 지음)=이 책은 공작팔쥐, 구미호, 홍길동,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쓴 창작 이야기에 작가의 에세이를 덧붙인 것이다. 페미니즘 도서 전문 출판사 이프북스가 2년간 기획하고 갈등 중재와 교육, 번역과 저술, 콘텐츠 기획, 심리 치유의 영역에서 페미니스트로 활동하는 이들을 작가로 섭외했다. 이프북스, 1만5000원.



▶걱정이 너무 많아(김영진 글·그림)=아이들의 일상을 정감 있는 그림으로 그려내며 아이들이 물론 엄마, 아빠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김영진 작가가 이번에는 누구나 갖는 '걱정'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만들었다. 걱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할머니의 조언을 통해 걱정과 잘 지내는 방법도 알려준다. 길벗이린이, 1만3000원.



▶초등학생을 위한 양자역학(이억주 지음·홍승우 그림)=양자역학을 만화로 알려주는 과학 학습 만화다. 책은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기묘한 빛을 맞은 뒤부터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다윈이의 이야기로 꾸러졌다. 과거로 간 다윈이는 원자설을 제안한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부터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예프,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 등 과학자와 함께 양자역학의 비밀을 향해 나아간다. 어린이과학동아, 전 2권 (권당 1만2800원). 송은별기자 seb119@ihalla.com



수명을 위협하는 건 '만병의 어머니' 노화

싱클레어 박사의 '노화의 종말'

진화 과정 '생존 회로' 원인 식습관·약물 등 노화 막아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지만 75세까지 건강하게 산다면 딱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생의 마지막이 대체로 아름답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산소 호흡기, 화학 요법, 수술 등이 따르는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데, 우리가 진정으로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려면 노화와 질병을 보는 관점을 뒤집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심장병, 치매, 암 등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더 큰 무어의 증상일 뿐이라며 노화 자체가 질병이고, 만병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노화와 유전학 분야의 권위자로 통하는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런 현실에서 더 짧게 오래 살 수 있는 비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노화의 종말'에 지난 25년 동안 이어온 장수 연구 결과를 담아놓았다.

그는 우리가 늙는 원인을 진화 과정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 대해 발견된 판본으로 유전되어 온 '생존 회로'에 찾았다. 그러면서 DNA 손상을 막고 노화라는 질병을 끝내는 방법으로 적게 먹기, 건강한 약물의 복용, 첨단 의료 기술의 적용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수명 혁명이 과연 올는지 묻는다. 현재 추세로 치면 지난 25년 동안 이어온 장수 연구 결과에 답을 내놓았다. 싱클레어 박사는 서양 의학계가 지난 세기에 노화보다 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있다고 믿은 건 잘못이라고 짚는다. 현재 국제질병 분류 목록은 1만4000가지가 넘는



몇 명을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의미하다며 앞날을 낙관한다. 인구가 증가보다 늘 앞서 있게 해 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지, 지구를 모든 생물에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예전 사람들에게 비행이 마법이나 다름없는 기발한 상상이었지만 인간은 결국 날아올랐다고 여태껏 필연이라고 믿었던 노화 역시 끝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한음 옮김. 부키, 2만2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김만덕에서 4·3까지 무대를 상상하시라

강준 희곡집 '맹보, 바람 구두를 벗다'

공연은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 문학의 한 장르인 '희곡'에 대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다. 이대로라면 상연되지 못하는 희곡의 처지는 가엾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희곡은 더 말해 무엇 할까. 제주 극단에서 지역 작가들의 희곡을 무대에 올리는 일이 갈수록 줄고 있다.

경기도 이천 부악문원에 머물며 '맹보, 바람 구두를 벗다'를 표제로 연극·뮤지컬 대본 5편을 묶은 희곡집을 탈고했다. 표제작은 제주 4·3 시기와 오늘날을 오가며 두 젊은이를 통해 시대 정신에 대처하는 지식인의 역할과 책무를 짚었다. 제주방언을 제목으로 단 '뚝추림'은 4·3과 베트남 전쟁을 육식 본능에 의한 폭력의 양태와 연결지었다. 70대 해녀, 베트남 태생 손자 며느리를 등장시켜 사건 당사자들이 사라져도 후세에 유산처럼 남는 상처를 드러냈다.

근래 소설 창작에 힘을 쏟았던 강준(본명 강용준) 작가가 그의 문학적 출발이 된 희곡집을 내놓으며 덧붙인 말도 이랬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 공연이 되지 못하는 희곡을 계속 써야 하는 하는 자괴감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럼에도 그는 독자들이 무대를 상상할 수 있는 희곡을 다시 붙들었다. 코로나 시국에 문학 작업이라는 '자발적 자가격리'를 택해

'내 인생에 백태클'은 주인공 공달국에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허위 의식을 투영했다. '게스트 하우스 품'엔 아픈 가족사에 매몰된 영화배우의 삶이 담겼다. '산지로 연가'는 김만덕을 소재



로 한 창작뮤지컬 대본이다. 그동안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으로 김만덕을 다뤘지만 기존 작품들이 흥미 위주로 사건을 설정하고, 피상적으로 당대 지역의 현실을 인지하고, 상투적인 영웅화로 오류를 범했다는 작가는 이우과의 갈등, 자연재해와의 싸움, 사회적인 제약 등을 통해 입체감을 살렸다. 청어, 1만50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김신숙의 '한국의 병역제도'

"인구절벽에 지속 가능한 국방 과제"



제주에서 입영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단일 메뉴는 본인이나 자식의 병역 문제다. 병역제도의 개편, 복무 기간 등은 때마다 정치 쟁점이 되어왔다. 실제 병역제도는 우리 사회 구축적 영향을 미친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 청년들을 강제로 불러들이고 군에 복무하는 기간만 아니라 입대 전후의 진료, 대학 학사 관리, 취업과 창업 등에도 그 자장이 드리운다.

김신숙의 '한국의 병역제도'는 이처럼 우리 가족, 친구 등 모두와 얽여있는 병역제도가 어떤 매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풀어냈다. 완전징병제의 신화, 여성 징병제 문제, 복무 기간의 단축, 대체 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수십 년간 반복된 이슈를 중심으로 병역제도를 논했다.

이 책은 한국군이 닦친 가장 큰 위기로 저출산 영향에 따른 청년 인구의 감소를 꼽았다. 청년이 줄어들면 일정한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거의 모든 청년이 군에 가게 되는 '완전징병제의 시대'가 오는 걸까. 저자는 인구 사회적 여건 변화, 경제성장률의 안정적 둔화,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국방을 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운용해온 병역제도가 인구가 충분하던 팽창사회에 맞게 설계되었다면 이제는 선택권이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청년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군도 스스로 매력적인 직장이 되어야 하고, 대우를 높여야 한다"며 "군인 개인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한 병영시설, 장비, 복무 여건, 교육훈련 등 군 복무 전반적 측면에서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대를 졸업한 저자는 고려대와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각각 정치학 석사, 안보정책학 석사를 맞고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에서 무기 체계 획득 정책과 방위사업법을 담당하고 있다. 매디치, 1만8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와이텍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드텍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